KWC Judge Badge

KWC 심사위원 배지

**한국에서 홀로서기 한 국제 와인 대회로써 올해 18회 대회를 치른 코리아 와인 챌린지는 의미 있는 성장기를 맞이하고 있다.
한국 와인 시장의 성장과 나란히 출품 와인의 규모도 커졌다.
와인 문화가 성숙하면서 한국에서 소믈리에의 역할도 와인 소비자들에게 점점 더 인정받고 있다.
코리아 와인 챌린지에서 선택된 수상 와인의 권위 역시 심사위원의 전문성으로 인하여 빛을 발한다.
이에 KWC 심사위원 배지를 제작하여 심사위원들과 함께 더 발전하고 싶은 대회의 포부를 전한다.**

글 신승우 배지디자인 최영현

배지 제작에 대한 아이디어를 맨 처음 제안한 사람은 김인규 소믈리에임을 밝힌다. 매년 대회에 애정을 가지고 여러 조언들을 아끼지 않았는데, 심사위원 각각은 와인 소비자와 가장 가까이에서 소통하는 KWC 홍보 대사라는 말을 해주었다. 음식과 절묘한 조화를 이룰 와인을 소개하기 위해 손님으로부터 눈길을 떼지 않는 그들은, 어쩌면 테이블에 앉은 손님들이 식사하는 동안 부담 없이 소통할 수 있는 친근한 타인이다. 겉옷에 반짝이는 KWC 심사위원 배지에 대해 가장 자연스럽게 손님들에게 설명할 수 있는 영향력 있는 KWC 브랜드 앰버서더라는 말에 전적으로 동의되었다.

배지 디자인에 담긴 가치

그래픽 모티브 시스템 - 외형 도형의 차별화를 추구

KWC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것은 둥근 원 위에 씌어진 왕관 모양의 조형이다. 세계 유수의 와인 대회 로고 디자인을 일일이 확인하여 차별적 인지가 가능하도록 독창적으로 디자인되었다. 왕관 조형의 아름다움을 살린 그래픽 모티브이기도 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왕관이 지니는 상징성이다.

"왕관을 쓰려는 자 그 무게를 견뎌라"

(One who wants to wear the crown, bears the crown)

영국의 대문호 셰익스피어가 남긴 유명한 말이다. 왕관을 쓴 자는 명예와 권력을 가질 수 있지만 그에 걸맞은 막중한 책임과 소임을 다해야 함을 강조한 말이다. 그는 결정을 내릴 수 있지만 책임도 주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와인의 왕좌를 가리는 대회인 KWC에서 주어진 상, 즉 '왕관'도 다르지 않다. 그 왕관에는 좋은 와인을 만들기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는 와인 생산자들, 그 와인을 찾아내 한국에서 유통시킨 수입사들, 그리고 옥석을 가리기 위한 심사위원들의 세밀한 노력이 담긴 결정체라는 의미가 담긴다.

예선과 결선에 이르기까지 출품된 와인들을 진지하게 평가하고, 각자가 부여한 개인 점수에 합의하기 위해 토론하여 다른 전문가들을 설득해 가는 심사 과정은 결코 녹록하지 않다. 네 시간 동안 진행되는 하루의 심사 시간 동안, 입이 점점 까매지고 혀가 얼얼해지는 어려움도 마다하지 않는다. KWC를 통한 한국 와인 문화의 발전을 위하여 애정과 기대를 가지고 매년 심사에 참여하는 심사위원들의 열정에 비할 수 없겠지만, 이것도 왕관의 무게에 담고 싶은 작은 이야기이다. 왕관의 무게를 떠받치고 있는 원형은 빠진 것 없이 완전함을 의미한다. 그만큼 코리아 와인 챌린지의 심사는 어떤 차별도 없이 공정해야 하고 준비는 철저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다.

감사를 전하며

김인규 소믈리에의 아내 최영현 디자이너가 KWC 배지의 디자인을 맡았다. 현재 삼성 SDS 고객경험혁신 디자인 부장으로 재직 중인데, 글로벌 디자인 3대 어워드인 RedDot Best of Best, iF Winner, IDEA Top Winner-Silver를 모두 석권한 정말 화려한 경력을 가지고 있다. 이런 디자인 전문가가 공들여 가며 만든 배지여서, 기다리는 동안 어떤 모양일까 궁금하면서도 믿음이 갔다. 남편과 함께 2주 동안 공들여 심사하느라 애쓴 올해의 모든 소믈리에 심사위원들께 드린다면서 무료로 디자인을 보내왔다. KWC 심사위원들의 중요성과 그들이 착용할 배지 디자인의 가치에 대한 이해가 있었음을 모르지 않기에 그저 감사할 따름이다. 적은 지면으로나마 고마움을 전하고 싶다.

KWC 대회의 상징은 KWC 심사위원이다. 또한 그 상징은 KWC 수상와인이기도 하다. 심사위원은 심사를 진행하면서 은연 중에 자신들이 만나는 고객들은 이 와인을 어떻게 생각할까 고려하게 된다. 따라서 대회의 수상 결과는 한국 와인 소비자들의 눈높이를 반영하게 되어 있다. 한국 시장의 와인 소비자들의 수준이 급격히 높아지고 있는 큰 전환의 흐름 속에서, KWC 심사위원의 가치와 영향력은 더욱 중요해졌다. 이것이 KWC 심사위원 배지를 제작하게 된 배경이다. WW

036-037P KWC_ㅅㅣㅁㅅㅏㅇㅜㅓㅜㄴㄷ ㅂㅐㅈㅣ _ㅊㅗㅣㅈㅗㅇ.indd 모든 페이지
2022. 9. 22. 오후 6:28